

어린이보호구역 ‘일가족 참변’... 신호등만 있었다더라도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2단지 앞 사고 현장 ‘참혹’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자녀 8.5t 덤프에 치여 4명 사상

“과속 빈번한 위험한 도로”... 교통사고 올해만 10여건

“신호등 설치” 주민 요구 외면한 경찰, 사고 후 “설치 추진”

유치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세 자녀가 화물차에 치여 세살 짜리 아이가 현장에서 숨졌다.

불과 6개월 전 비슷한 사고가 났던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해 횡단보도 앞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던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8.5t 화물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A(여·35)씨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 자녀 B(2)양, 엄마를 따라가던 C(7)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A씨와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들쭈여 누나(B양)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이날 길 건너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

해 아파트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도로는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면서 아파트 앞 교차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위까지 꼬리를 물며 멈춰선 차량들로 줄을 이었다. A씨 가족은 정차된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가 정체가 풀리면서 진행되는 화물차에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A씨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호등만 설치했다면=사고 지점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선일유치원 주변 도로로, 지난 2017년 5월 8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과 행정당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없어 지난 5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는 등 일대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



17일 오전 아파트 인근 CCTV에 찍힌 교통사고 직전의 모습.

〈독자 제공〉

사고가 잇따랐다. 아파트 앞에서 만난 주민은 “인명 사고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까지 더하면 올해에만 1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광주시 등은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 현장 조사를 거쳐 ▲도로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인덕식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청했던 신호등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과속 차량들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야 출·퇴근길 정체에도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고, 교차로까지 꼬리를 무는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신호등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유발 ▲통행량이 적어 과속 방지를 위한 인덕식 횡단보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격상... 광주 2/3 등교 체제 유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기로 한 가운데 광주 지역 각급 학교들은 현 3분의 2 등교 체제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학사 운영도 가능하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동시공간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등교 체제와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차 등교가 가능한 대부분 초등학교는 매일 전체 등교가 이뤄지고, 시차 등교가 어려운 일부 초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이뤄진다.

중학교는 시차 등교와 부분 원격수업에 따라 매일 전체 등교 또는 3분의 2 등교가 이뤄진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12월 3일)을 앞둔 고3은 수업하지 않고 있어 고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원생 60명 이하는 매일 등원하고, 60명 초과는 3분의 2 등원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학생들이 최대한 등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특히 초등 전체와 고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방향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수련장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사용

전남교육청, 해남 송호학생수련장 직원 주의 조치

해남 땅끝에 있는 전남교육청의 송호학생수련장이 학생들의 공간인 생활관 일부를 교직원 관사로 사용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학생교육원 등에 따르면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송호학생수련장에 근무하는 교직원 5명은 수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수련장 생활관 5개를 무단으로 관사로 사용했다.

송호학생수련장에는 생활관 1개당 학생 4~9명이 숙박할 수 있는 총 37개 생활관이 있는데 그중 5개를 교직원들이 사용해 온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송호학생수련장 교직원들이 이처럼 건축물의 관사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기관장인 전남도학생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부적절하게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관사로 활용해왔다”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중학생들이 세운 ‘작은 소녀상’

광주 임곡중 민주·인권동아리

광주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 17일 교내 2층 복도에 ‘평화의 작은 소녀상(사진)’을 설치했다.

소녀상 설치의 평소 일제강점기 시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아픔에 공감해 왔던 임곡중 민주·인권동아리 ‘그날들’ 소속 학생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평화의 작은 소녀상’은 빈 의자 한 개, 소녀상으로 구성됐다. 소녀상에 담긴 정신과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설명글을 제작해 역사적 이해를 도왔다.

임곡중 1학년 전진아양은 “‘평화의 작은 소녀상’ 설치 행사를 통해 빈 의자, 뒤꿈치가 들린 발, 한복을 입은 소녀상에 담겨 있는 의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빨리 치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곡중은 소녀상 설치와 함께 ‘작은 소녀에게 전하는 말’, ‘역사 토론 대회’ 등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부 우수사례집 ‘최다’ 눈길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대학일자리센터 우수사례집’에서 전국 108개 대학 중 우수사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

1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전국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2020년 대학일자리센터 우수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창업 등 윈윈 프로그램 진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연계해 전국 10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대학일자리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사례집에 실릴만한 비대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수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은 총 5건이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한 우수사례로는 ‘대학생통합지원시스템(CU+/Career Up+)’이, 비대면 프로그램 우수사례로는 ‘진로설계 call-back 상담서비스’와 진로 교과목 ‘자기탐색과 미래설계’가 선정됐다. 또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전’과 ‘글로벌취업 Cheer up!’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